



선거운동 신고 접수하는 후보 지지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3일 오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지지자가 선거운동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3일 오전 전남도선관위에 전남도교육감 선거예비후보자등록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장관호예비후보제공

## 광주·전남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1명

장관호 전 전교조 지부장, 전남교육감 출마  
교육통합 확정시 출마 포기 후보 늘어날 듯

6월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전남은 행정통합과 후보 단일화 추진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장 예비후보는 앞으로 도민과의 소통 간담회, 정책 비전 발표회 등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 예비후보 외 전남도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6~7명에 달하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이를 관망하며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3명이 참여했다.  
광주시민공천위 경선에 참여한 3명의 후보는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11일 확정된 단일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최대한 현직을 유지한 뒤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권이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정되면 출마와 불출마 후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권역이 광주·전남 전체로 확대돼 대도시권, 농어촌권 선거공약과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지만 선거가 불과 3달 밖에 남지 않아 출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비용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교육감이 7억 2487만원, 전남도교육감이 15억 821만원이다.  
양 지역을 단순 합산하면 22억 원 정도로 7일부터 10일까지 시민공천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광주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민주진보교육감 광주시민공천위 경선에는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

## 광주·전남 민선출직 하위 20% 통보...지역 정가 뒤숭숭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인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개별통보가 완료됐거나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 정가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천 살생부'로 불리는 하위 20%에 포함된 일부 선출직은 평가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공천 과정에서 내부 반발도 우려된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남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들에게 개별통보를 마쳤다.  
기초단체장(구청장) 1명, 광역의원(시의원) 4명이 포함됐고, 기초의원(시의원) 4명이 포함됐고, 기초의원은 총 10명으로 동구 1명, 서·남·광산 각 2명, 북구 3명이다.  
전남의 경우 현역 평가는 모두 마무리

광주, 구청장 1명·광역의원 4명·기초의원 10명  
전남,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11명 등 포함  
70명 안팎 컷오프... 공천·경선 과정에서 20% 감산  
된 상태지만, 다음주 중 공관위가 출범한 뒤 하위 20% 통보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당은 최근 박준수(전 전남도 감사관) 공관위원장 등 15명으로 공관위 구성을 마친 상태다.  
현역 평가 결과, 기초단체장(시장·군수)은 17명 중 3명, 광역의원(도의원)은 56명 중 11명, 기초의원은 22개 시·군 216명 중 최소 1명, 최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통틀어 총 70명 안팎이 하위 20%로 분류된 것으로 추산된다.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 득

표에서 각각 20%를 감점(패널티) 받게 돼 가산점이나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지 않는 한 사실상 탈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중 패널티'로 한층 더 고달픈 협로가 예상된다.  
현역 평가와 개별 통보가 시작되면서 지역 정가에선 '누가 누가 포함됐다'는 설과 '하위 20% 명단'이라는 출처 불명의 메시지가 나도는가 하면 불출마설과 탈당성까지 나오고 있다.  
한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20%에 포함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치적 판단이나 감정적 평가가 끼여 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는 등 일부 입지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역 평가 결과는 철저히 밀봉되고 비공개 원칙으로 개별 통보되고 있는데다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쉽지 않아 불공정이 끼여들 여지가 없다"면서도 "왜 내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느냐는 반발과 재심 신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게는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하위 20% 명단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자객 공천', '비명 황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기동취재부

Goheung Spaceship Terminal

#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 2026.5.2. (토) - 5.5. (화)

###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